

종합

고물가·구제역·전세난... 소비심리 '꽁꽁'

2월중 CSI 105... 21개월만에 최저치

광주·전남지역도 전달보다 3P 하락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 지수(CSI)가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2011년 2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2월 중 CSI는 105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SI는 지난 2009년 5월 105를 기록한 이후 계속 이 수치를 상회해왔다. CSI는 기준치 100을 넘어면 경기를 좋게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

면 그 반대다. 한국은행은 "소비심리가 기준치를 웃돌기는 하지만 최근 약 2년간으로 보면 나쁜 수준"이라며 "물가상승, 구제역 파동, 전세난 등 악재요인이 집중되면서 소비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와 6개월 뒤 생활형편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 CSI는 각각 89, 96으로 지난해 6월 이래로 가장 낮았다.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은 부동산과

금융저축 부문이 다소 상승한 반면 주식은 떨어졌다.

주력·상가가치전망 CSI는 111, 토지·임야가치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각 1포인트씩 상승했고, 금융저축가치전망 CSI도 10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주식가치전망 CSI는 102로 4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7%로 전월과 같았다.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도 현재 생활형편은 물론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내다보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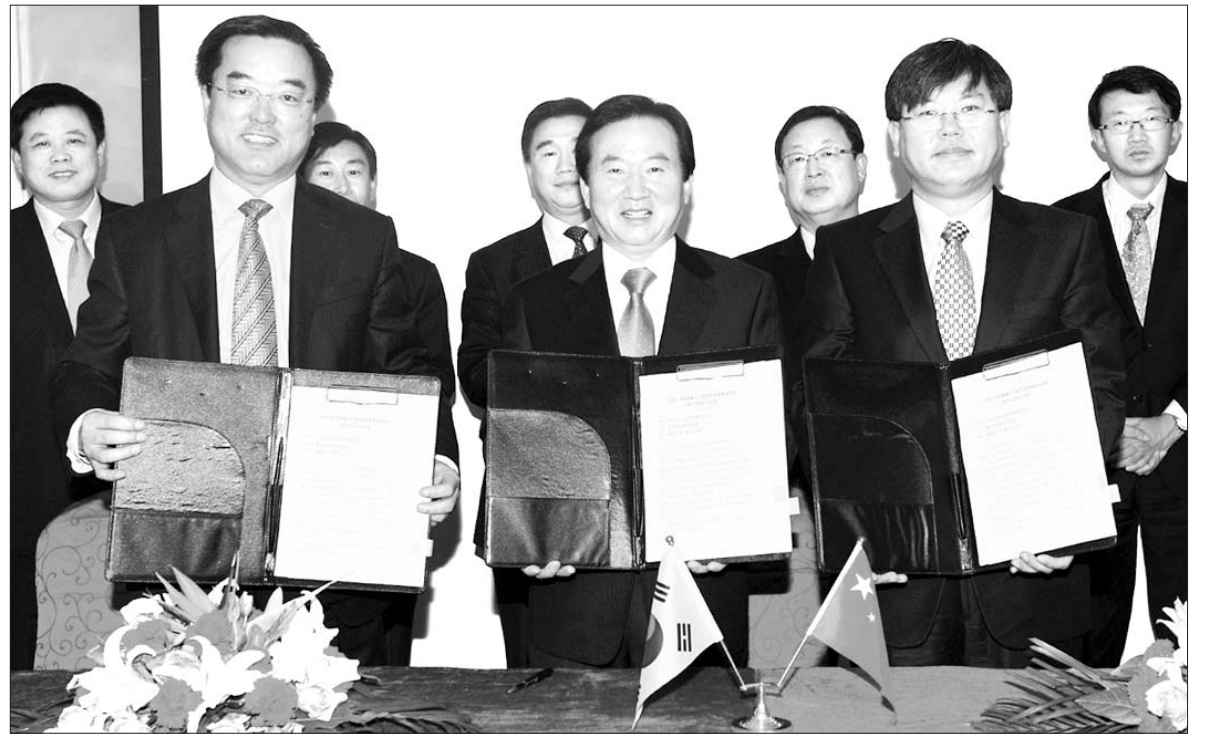
이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 37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

CSI는 89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예상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CSI도 98로 1포인트 내려갔다. 또 6개월 후 가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 CSI(102→100)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6개월 후의 소비지출전망 CSI(112→112)도 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7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11%), 고용사정(8%),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취업기회전망CSI(104→99)는 5포인트 하락하고 6개월 후의 물가수준전망CSI(150→147)는 3포인트 하락했으며 금리수준전망CSI(129→133)는 4포인트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운태시장, 中 금주신구와 교류 협력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광운태 광주시장은 24일 중국 다롄의 신흥 경제특구인 금주신구(金州新區)와 산업 및 연구정보 수집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수출 첫 300억 弗 돌파 기념식

기업인 등 45명 표창

전남의 지난해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남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무려 35.1%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출실적은 304억달러로 사상 첫 3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232억달러를 수출했던 것에 비해 30.6%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한다. 또 전남의 7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5.1%에 달한다.

전남 수출은 여수·광양산단의 석

유와 철강, 수송기계 분야가 이끌었다. 전체 수출액 304억달러 중 석유화학이 119억5200만달러로 39.3%에 달했고 석유제품은 86억2300만달러(28.4%), 철강 41억1900만달러(13.6%), 수송기계·선박류 38억1400만달러(12.5%) 등으로, 이들 4대 품목이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수출 304억달러 달성 기념식을 열고 수출증진에 앞장 선 기업인 24명, 근로자 12명, 수출지원 기관 4명, 공무원 5명 등에게 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봇이 불끈다

소방방재청 상반기중

17곳 배치 시범 운영

이르면 상반기 중에 '로봇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불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소방방재청은 24일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소방로봇을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7개 소방본부에 배치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돼 소방본부당 화재진압용 로봇은 1개씩, 탐지용 로봇은 2개씩 화재 현장에서 활용된다.

화재진압용 로봇은 폭발 위험이 있거나 복사열 등으로 소방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화재 현장, 소방차 진입로 등이 막혀 진입이 어려운 현장에 투입돼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탐지용 로봇은 카메라와 가스 측정 센서 등을 달고서 소방관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전달한다. 개발된 소방로봇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형이 아니라 원통형, 탱크형 등으로 제작됐다.

/*연합뉴스

리비아發 3차 오일쇼크 공포

WTI·브렌트유 최고치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리비아 사태 악화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달보다 2.68달러(2.8%) 오른 배럴당 98.1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1일 이후 중가 기준으로 최고치다. WTI는 이날 장중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 2008년 여름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 폭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런던 ICE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도 전달보다 5.3% 오

른 배럴당 111.37달러에 거래돼 지난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선을 넘어서었다. 휘발유 가격도 4.7% 올라 갤런당 2.7236 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리비아 사태가 악화돼 해외 석유업체들이 현지에서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최대 석유업체인 빈터스탈이 리비아내 8개 유전의 석유 생산을 중단했고 프랑스 정유업체 토틸, 스페인 레스폴 등도 리비아내 석유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8대 산유국인 리비아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전문가들은 중동·북아프리카의 시위 확산 이후 리비아의 산유량도 약 절반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산강 사업 9월께 조기 완공

현재 공정률 82%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9월 조기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4일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 작업 등 주요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오는 9월께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68%지만 준설의 경우 총 2683만 m³ 중 2203만 m³를 완료해 공정률이 82%에 이른다.

보(泐·댐) 공정도 승촌보의 경우 86.7%, 죽산보는 90%에 달한다. 승촌보는 1단계 구간인 보 구조물 건설

을 완료하고 2단계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소 공사도 진행중이다. 상부교량의 밑설치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죽산보도 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수문 6기 중 4기가 설치된 상태다.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이 4대강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영산강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등 주요 국제행사 성공개최 총력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서 밝혀

전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전남에서 치러지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는 25일 도청 정월실에서 '2011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2010년 사업 결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비롯,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한다. 자원봉사센터는 또 올해 슬로건을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의 공동체 전남 건설'로 확정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실천을 통한 환경·복지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자원봉사활동 실패과과 및 의식조사 ▲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 및 전문적인 자원봉사 교육강사 육성 사업 ▲ 나눔 2011 전남도 자원봉사자대축제 추진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는 특히 올해 열리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비롯,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청나눔의 공동체 전남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改名.....?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